

성격유형 형용사 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연구

최 윤 경 · 안 창 일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여 Millon의 기본 성격 유형을 평가하기 위해 형용사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이다. 척도의 구성과 타당화는 Loevinger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178문항을 포함한 9개의 성격유형 척도가 개발되었으며, 이들은 Millon의 8가지 기본 성격과 세가지 심각한 유형을 반영하는 문세지표로 구성되었다. 요인분석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이 수행되었다. 이들은 높은 내적 합치도와 2주일에 걸친 높은 검사-재검사 신뢰도, 자기 보고식 검사에 기초한 좋은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보여주었다. 요인분석에서, 이들은 정서적 신경증, 주장성-공격성, 순응성, 그리고 사회적 내-외향성으로 해석되는 차원들을 산출했다. Millon의 이론을 정상인에게 적용하는 것과 같은 연구 노력은 성격의 전체 스펙트럼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이론가들은 인간의 경향성(human tendency)을 개인차로 설명할 때 자연어(natural language)가 편리한 출발점을 제공한다고 하였다(Allport, 1937; Cattell, 1957; Goldberg, 1977; Norman, 1967). 그들은, 모든 인간의 경향성은 사전 속에 있으며, 이런 경향성을 경험적으로 연구하기에 앞서 특성-기술적인(trait-descriptive) 용어를 적절하게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Allport와 Odbert(1936)은 인간의 서로 다른 행동을 구별해주는 용어를 찾기 위해 Webster's

New International Dictionary(1924)에 포함된 대략 오십만개의 단어를 검토하여 그런 특징을 가진 17,953개의 단어를 확인하였다.

Cattell(1946)은 Allport-Odbert 목록 중 4,504개의 단어 세트만을 고려하여 비교적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성격 측면을 나타내는 171개의 단어를 선택했다. 이들을 요인 분석한 결과, 62개의 "표면 군집(surface clusters)"이 산출되었고 이들 중 35개를 기초로 12개의 "성격의 주요 근원 특성"이 추출되었다.

Norman(1963; 1967)은 Allport-Odbert의 목

록에 포함되지 않은 단어들을 추가하기 위해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Unabridged(1961)의 전체 내용을 검토하여 27,000개의 단어를 포함시켰다. 이후, Norman과 Goldberg는 모호하고 부적절한 단어와 고어를 제거함으로써 목록을 3,600개로 감소시켰다. 그들은 이러한 기술적인 형용사를 동료들에게 평정하게 하고 여기에 요인분석적 기법을 적용하여 성격의 주요 측면을 확인하는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였다(Norman, 1963). 이것이 성격의 5-요인 이론의 기초가 된다. 5-요인은 신경증(neuroticism), 외향성(extraversion),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친절성(agreeableness), 양심성(conscientiousness)을 포함한다(Tupes & Christal, 1961; Norman, 1963).

Goldberg(1981)는 어휘 연구에 대한 흥미를 다시 고취시켰으며 Norman이 보고한 것과 유사한 5-요인을 재발견했다. Digman과 Takemoto-Chock(1981),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도 5-요인 모형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Goldberg의 형용사 요인들을 3-요인 NEO 검사(McCrae & Costa, 1983)에 관련시킨 연구는 NEO-PI(Costa & McCrae, 1985; 1987)라는 새로운 검사의 개발을 야기했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자연어의 연구가 개인차를 연구하기 위한 적절한 출발점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형용사의 단순한 나열은 개념적으로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기 쉽다(Heilbrun, 1959).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을 새롭게 더 광범위한 행동 차원을 측정하는 단어군으로 반응을 채점하는 것, 즉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Cattell(1946)이나 Costa와 McCrae(1985; 1989)는 요인분석을 이용하였고, Gough와 Heilbrun(1960)은 성격이론에 기초한 ACL(Adjective Check List)을 개발하였다. ACL은 Murray(1938)의 욕구 이론에 기초한 15개의 욕구 척도, Berne(1966)의 교류분석 이론에 기초한 5개의 자아 기능-비판적 부모(critical

parent), 양육적 부모(nurturing parent), 어른(adult), 순진한 아동(free child), 눈치만 살피는 아동(adapted child)-척도 등을 포함한다. ACL은 자기-개념 연구에 큰 유용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Teeter, 1985; Zarske, 1985).

한편, 과거 몇 년에 걸쳐 Theodore Millon(1969; 1981)의 성격 이론과 그 이론에서 파생된 성격 유형에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었다(Skinner, 1981; Wiggins, 1982). 이러한 관심은 다양한 장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검사들이 개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DSM-III(APA, 1980)의 축 II와 그의 성격 유형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이론은 성격의 유형론과 같은 복합적 구조로 성격을 설명하는 성격평가의 최근 경향을 나타낸다(Millon, 1984).

Millon(1981; 1985)은 성격의 형성과 발달에 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동시에 강조하는 생사회적 학습(biosocial learning) 이론을 제안하였다. 그에 의하면, 정적 강화를 얻고 부적 강화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강화 전략은 성격의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이 강화의 전략은 강화의 근원, 도구적 행동 양식을 반영한다.

강화의 근원은 강화를 어디에서 얻는가 하는 것으로 4가지로 분류된다. 독립적으로 강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 강화를 추구하며, 강화를 얻고 처벌을 피하는데 자기-신뢰(self-reliance)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학습한다. 의존적으로 강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타인에게서 강화를 추구한다. 이들에게는 타인으로부터 주의, 애정, 지지가 중요하다. 양가적(ambivalent)으로 강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강화를 어디에서 얻을 것인지가 불확실하다. 그들은 이런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어서, 의존, 동조와 독립, 자율성, 심지어 공격성 사이에서 동요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들은 외현적으로는 의존과 복종을 나타내지만 이면엔 독립적이고 적대적인 감정과 충동을 주장하는 강한 욕구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분리적

인(detached) 입장에서 강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현실에서 강화를 추구하는데 실패한다. 이들은 자신과 타인에게서 강화를 경험할 수 없으며, 보상을 얻고 처벌을 회피하려는 욕구 자체의 결여를 보여준다. 또 한편으로는 쾌락적 강화를 얻고자하는 욕구가 감소되었지만, 고통에 두드러지게 민감할 수 있다.

도구적 행동양식은 강화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능동/수동의 차원으로 분류된다. 능동적인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대안을 탐색하고 사건을 조작한다. 이들은 활동적이고 진취적이며, 환경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낸다. 수동적인 개인은 환경이 그들에게 강화를 제공해주기를 기다릴 뿐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며, 그런 사건에만 반응한다.

이상에서 기술한 강화의 근원과 도구적 행동양식이 상호작용(4×2)하여 8가지 기본성격유형이 형성된다(그림 1 참조). 기본 성격유형은 비사회

적(asocial), 회피적(avoidant), 복종적(submissive), 사교적(gregarious), 자기애적(narcissistic), 공격적(aggresive), 순응적(conforming), 부정적(negativistic) 성격이다. 이러한 정상적인 성격유형이 병리적으로 확장된다면, 각각 정신분열성(schizoid), 회피적(avoidant), 의존적(dependent), 연기성(histrionic), 자기애적(narcissistic), 반사회적(antisocial), 강박적(compulsive), 수동-공격적(passive-aggressive) 성격장애가 된다. 이상의 8가지 성격장애가 좀 더 심각해지면 편집증적(paranoid), 경계선적(borderline), 정신분열형(schizotypal) 성격장애가 된다(Millon, 1981; 1985). 이처럼 정상과 이상은 연속선 상의 양극을 나타내며, 이들은 유사한 특성, 행동, 배경 특징을 공유한다. 즉, 정상과 이상 성격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양적인 차이에 의한 것이다.

그림 1. Millon의 성격, 성격장애 모형

도구적 행동양식	강화의 근원			
	독립적	의존적	양가적	분리적
능동적	공격적 성격 ↘ 반사회적 성격장애 ↘ 편집증적 성격장애	사교적 성격 ↘ 연기성 성격장애 ↘ 경계선적 성격장애	부정적 성격 ↘ 수동-공격성 성격장애 ↘ 경계선적 성격장애	회피적 성격 ↘ 회피성 성격장애 ↘ 정신분열형 성격장애
수동적	자기애적 성격 ↘ 자기애적 성격장애 ↘ 편집증적 성격장애	복종적 성격 ↘ 의존적 성격장애 ↘ 경계선적 성격장애	순응적 성격 ↘ 강박적 성격장애 ↘ 편집증적 성격장애	비사교적 성격 ↘ 정신분열성 성격장애 ↘ 정신분열형 성격장애

최근, Strack(1987)은, 정상 성격을 연구함으로써 정상과 이상 성격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정상인 집단에서 Millon의 성격 유형에 기초한 PACL(Personality Adjective Check List)을 개발, 타당화하였다. 그는 Loewinger(1957; 1972)의 방법을 사용하여 Millon의 11가지 성격 유형중 8개에 대한 신뢰로운 형용사 척도를 구성했지만, 세가지 병리적인 성격 유형에 대해서는 신뢰로운 척도를 구성하지 못했다(Wiggins, Pincus, 1989). 이 척도들은 .65~.89의 높은 내적 합치도를 보였으며, 3개월에 걸친 높은 검사-재검사 신뢰도(.63~.85)를 보였다. 이 척도들을 요인분석한 결과, 정서적 신경증, 주장성-공격성, 사회적 내-외향성 요인이 산출되었다. 또한, ACL(Gough & Heilbrun, 1983), CPI(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Gough, 1957), 16PF(Cattell, Eber, & Tatsuoka, 1970), MAACL(Multiple Affect Adjective Check List; Zuckerman & Lubin, 1965), SCS(Self-Consciousness Scale; Fenigstein, Scheier, & Buss, 1975), LOT(Life Orientation Test; Scheier & Carver, 1985)와 같은 자기 보고식 검사들과의 상관분석에서 PACL은 높은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보여주었다(Strack, 1987).

한편, 국내에서는 박병관, 김진영, 노주선, 안창일, 신동균 및 박영숙(1991)이 MWB 성격장애 척도(Morey, Waugh, & Blashfield, 1985)를 참고하여 구성한 MMPI 성격장애척도가 있다. 성격장애척도는 정상집단과 환자집단에서 높은 내적 합치도, 안정된 심리측정적 특성, 양호한 구성타당도를 보였다. MMPI 성격장애 척도에 관한 요인분석 연구(최윤경, 임영란, 박병관, 안창일, 최정윤, 김재환, 1992)에서는 내외향성, 더 병리적인 성격장애, 불안-관련 요인이 산출되었다. 그들은, MMPI 표준 척도에 성격장애 척도를 첨가함으로써 기존 MMPI의 적용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성격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하려는 움직임, 정상적인 성격의 연구를 통해 정상과 이상 성격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정상인의 성격유형을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순히 외국의 검사를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차를 나타내는 우리말 수집에서 출발하여 정상적인 성격유형을 측정하는 검사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시키고자 한다. 단순히 단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 유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성격 및 성격장애를 비교적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 Millon의 성격모형에 기초하여 척도를 구성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성격과 행동 특성을 나타내는 우리말을 탐색함으로써 개인차 연구에 편리한 출발점을 제공할 것이다. 신뢰롭고 타당한 성격유형 형용사 척도가 개발된다면 그것은 성격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탐색적인 도구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상적인 성격유형을 연구함으로써 정상과 이상 성격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과제를 다루었다.

연구과제 1. Millon의 성격 및 성격장애 모형에 기초한 성격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성격 및 행동특성을 나타내는 우리말 형용사를 수집한 후, 성격유형 척도를 개발한다.

연구과제 2. 성격유형 형용사 척도의 내용 동질성과 시간적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구한다.

연구과제 3. 형용사 척도들간의 상관 및 요인분석 연구를 통해 구성타당도를 평가하고,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평가한다.

연구과제 4. MMPI, 16PF 척도들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본 척도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평가한다.

방 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정상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4년제 대학 재학생 중 심리학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인원 579명(남자 : 355명, 여자 : 22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남자가 20.43세($SD=2.27$), 여자가 19.92세($SD=1.53$)였다.

잠정적인 성격유형 형용사 척도 및 Crowne & Marlowe(1960)의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단축형(이주일, 1988; 금명자, 1984)과 함께, 이들중 일부에게는 16PF(염태호와 김정규, 1990)를 실시했고, 또 다른 일부에게는 MMPI(김영환, 김재환, 김중술, 노명래, 신동균, 염태호, 오상우, 1989)를 실시했다.

2. 방법 및 절차

(1) 척도의 개발

척도의 개발을 위해 Loevinger(1957; 1972)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Strack(1987)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먼저, 새국어사전(이기문 감수, 1989)을 참고하여 성격 및 행동 특성을 기술하는 925개의 단어를 수집한 후, 10명의 심리학과 학생들(대학원생 8명, 학부생 2명)에게 성격 및 행동 특성을 기술하는데 이 단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5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지나치게 어렵고 모호한 단어를 제거하기 위해 평균이 3점 이상이 되는 단어들만을 선택하여 단어수를 680개로 감소시켰다. 7명의 임상심리전문가 및 임상심리전공 대학원생이 평정자로 선발되었다. 이들은 Millon의 성격이론(1981; 1985)에 근거하여 각 단어가 11가지 성격유형 중 어떤 유형에 가장 적합한지를 평정하였다. 7명의 평정자 중 5명 이상이 동일한 유형이라고 평정한 단어만을 선택하여 잠정적인 형용사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잠정적인 척도를 579명의 대학생에게 실시하였고, 이중 325명의 자료

에 대해 빈도 및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피검자의 5% 이하, 80% 이상이 반응한 문항은 이후의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이것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피검자들이 반응한 문항은 성격유형을 나타내기 보다 극단적인 사회적 바람직성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개의 잠정적인 척도값과 개별 문항에 대한 양분점 상관계수가 .25 이상이 되고 다른 척도들 보다 그 문항이 포함된 척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문항만을 포함시켜 예비척도를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문항간 상관이 .50 이상되는 단어들, 직관적으로 판단할 때 의미가 유사하다고 간주되는 단어들은 동의어로 간주하고 반응 빈도를 검토하여 중간정도의 응답빈도를 나타내는 문항을 선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척도에서 20-30개의 문항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2) 타당화

성격유형 형용사 척도를 254명의 새로운 표본에 실시하여 내적 합치도를 구하고, 이들 중 135명에게 2주일 간격으로 형용사 척도를 실시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척도 개발과 신뢰도 산출에 사용된 579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전체 척도들 간의 상관 및 중점 문항을 제거한 후 척도들 간의 상관을 구했으며 본 척도가 다루고 있는 차원을 평가하기 위해 Principal component 방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그리고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16PF 및 MMPI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결 과

1. 성격유형 형용사 척도의 개발

척도의 개발 과정에서 세가지 병리적인 성격유형-정신분열형, 경계선적, 편집증적 성격유형-은 문항수가 너무 적어 척도를 구성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더 심각한 성격유형을 나타내는 문항들이 정상인 집단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변별해

표 1. 내적 합치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

척도	문항분석 표본			새로운 표본			검사-재검사 신뢰도 N=135
	전체 N=325	남자 N=193	여자 N=132	전체 N=254	남자 N=162	여자 N=92	
비사고	.80	.82	.77	.80	.82	.77	.71
회피	.85	.86	.85	.80	.83	.85	.74
복종	.82	.82	.84	.78	.80	.84	.76
사고	.86	.85	.88	.84	.84	.88	.87
자기애	.80	.79	.81	.78	.77	.81	.71
공격	.85	.88	.82	.82	.83	.82	.76
순응	.88	.87	.89	.88	.89	.89	.82
부정	.82	.81	.80	.81	.83	.80	.77
문제	.79	.81	.77	.76	.77	.77	.73

표 2. 성격유형 행동사 척도들간 상관(N=579)

척도	비사고	회피	복종	사고	자기애	공격	순응	부정	문제
비사고		.56**	.27**	-.28**	.16**	.06	.28**	.39**	.36**
회피	.60**		.33**	-.12*	-.08	-.15**	.04	.51**	.50**
복종	.22**	.36**		.26**	.05	.06	.47**	.06	.09
사고	-.24**	-.06	.41**		.38**	.36**	.12*	.13**	.12*
자기애	.08	-.04	.11*	.53**		.43**	.21**	.33**	.32**
공격	.00	-.19**	.11*	.49**	.71**		.28**	.19**	.28**
순응	.27**	.07	.53**	.17**	.30**	.34**		-.14**	-.03
부정	.43**	.62**	.07	.14**	.23**	.10**	-.13*		.62**
문제	.44**	.67**	.11*	.14**	.26**	.18**	-.03	.77**	

* P<.05 ** P<.01

※ 좌측하단: 최종 문항을 모두 포함시킨 것
우측상단: 중첩 문항은 제외시킨 것

낼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 세가지 심각한 성격유형을 묶어 문제 지표(Problem Indicator)척도를 구성하였다. 이상의 절차에 의해 최종적으로 178문항으로 구성된 성격유형 행동사 척도를 구성하였다. 개별 척도의 문항과 문항수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2. 신뢰도

성격유형 행동사 척도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

해 α 계수를 산출하였다(표 1참조). 문항분석시 사용된 표본에서 .79~.88(남자는 .79~.88, 여자는 .77~.89), 새로운 표본에서 .76~.88(남자는 .77~.89, 여자는 .77~.89)의 내적합치도를 보였다. 이는 성격유형 행동사 척도의 내용 동질성이 표본과 성별에 상관없이 꽤 일관적임을 보여 준다. 또한, 2주일 간격으로 실시된 행동사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제시하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1~.87의 범위에 있었다.

3. 내적 타당도

(1) 형용사 척도들간 상관분석

성격유형이 서로 공유하는 특성이 각 척도에서 측정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척도들간 상관을 구했다. 또한, 비교를 위해 중첩 문항을 제거한 후 척도 간 상관을 제시하였다(표 2 참조). 예측할 수 있듯이, 문항 중첩의 영향이 제거됨으로써 척도간 상관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상관의 형태는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척도들 간의 상관이 단지 문항 중첩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유형이 비직교적(nonorthogonal)이라는 Millon의 모형에 대한 지지를 보여준다.

(2) 요인구조

성격유형 형용사 척도가 어떤 차원을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들 간에 가장 단순한 구조를 결정하는 Principal component 방법을 사용하였고(Gorsuch, 1983) 척도들 간에 중간 정도의 상관이 있을 경우 최상의 결과를 산출하는 Oblique 회전을 하였다(Weiss, 1971; Strack, 1987; 이영준, 1991).

남자의 경우, 3개(전체 변량의 77.1% 설명), 여자의 경우, 4개(전체 변량의 85.8% 설명)가 아이겐 값 1.0 이상이었다. 여자의 경우, 세 요인은 남자의 것과 유사했고, 제4요인만이 독특하게 산출되었다.

제1요인. 제1요인은 남자의 경우 전체 변량의 35.6%, 여자의 경우 30.9%를 설명하고, 문제지표, 회피, 부정, 비사교적 성격의 순으로 높은 부하량을 보였다. 이 요인은 불안, 철수, 과민성 등을 의미하는 '정서적 신경증' 성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요인이 PACL(Strack, 1987), MCMI(Choca, Peterson, & Shanley, 1986; Flynn & McMahon, 1984; Millon, 1982), 그리고 MBHI(Millon, Green, & Meagher, 1982)의 분석에서도 산출되었다. PACL의 제1요인은 부정, 문제지표, 회피, 순응적 성격을 포함하며, Millon(1982)의 제1요인은 회피, 부정, 순응, 비사교, 복종적 성격을 포함한다.

제2요인. 남자의 경우 전체 변량의 26.1%, 여자의 경우 26.2%를 설명하는 제2요인은 공격, 자기애, 사교적 성격에서 높은 부하량을 보였다. 여

표 3. 성격유형 형용사 척도의 요인구조(Oblique 회전)

척도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요인 IV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여자
비사교	.74*	.47*	-.13	.03	.33	.27	-.83*
회피	.89*	.77*	.11	-.32	.27	.38	-.36
복종	.25	.11	.20	.07	.86*	.95*	-.04
사교	.03	.10	.79*	.56*	.30	.42*	.68*
자기애	.20	.12	.87*	.91*	.10	.20	.11
공격	-.01	.10	.88*	.91*	.18	.09	.10
순응	-.01	-.11	.28	.43*	.85*	.70*	-.49*
부정	.87*	.90*	.21	.16	-.10	-.00	-.09
문제	.89*	.90*	.26	.17	-.00	.07	-.09
아이겐값	3.21	2.78	2.35	2.36	1.39	1.54	1.04
설명변량	35.6	30.9	26.1	26.2	15.4	17.1	11.5

* 표시는 요인부하량 .40 이상임

자의 경우, 이에 더해 순용적 성격에서 중간 정도의 정적 부하량을 보였고 회피적 성격에서는 부적 부하량을 보였다. 이 요인은 '주장성-공격성', '사회적 대담성'이라 해석할 수 있다. 유사하게 Millon(1982)의 제2요인은 자기애, 공격, 사교, 비사교적 성격 척도들을 포함한다. PACL의 제2요인은 자기애, 공격적 성격에서 정적 부하량, 복종, 회피적 성격에서 부적 부하량을 보였다 (Strack, 1987). 또한, Choca 등(1986)의 분석은 자기애적 성격과 연기성 성격유형에서 높은 부하량을 산출했다.

제3요인. 남자의 경우 전체 변량의 15.4%, 여자의 경우 17.1%를 설명하는 제3요인은 복종, 순용적 성격에서 높은 부하량을 보였다. 이 요인은 '순용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제4요인. 여자 집단에서만 산출된 제4요인은 전체 변량의 11.5%를 설명하며, 사교적 성격에서 높은 정적 부하량, 비사교, 순용, 회피적 성격에서 높은 부적 부하량을 보였다. 이것은 '사회적 내-외향성' 차원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제4요인은 PACL의 제3요인과 유사하며 MCMI와 MBHI에서는 유사한 요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표 4.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의 상관

척도	전체 (N=579)	남자 (N=355)	여자 (N=224)
비사교	-.08	-.08	-.10
회피	-.20**	-.18**	-.22**
복종	.18**	.20**	.14*
사교	-.03	-.01	-.04
자기애	-.11*	-.14*	-.07
공격	.02	.02	-.00
순용	.25**	.24**	.25**
부정	-.36**	-.31**	-.42**
문제	-.27**	-.21**	-.34**

* P < .05 ** P < .01

(3)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 상관

자기 보고식 검사, 특히 예-아니오 응답 형식이

가질 수 있는 피검자의 반응 양식은 결과의 해석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자신에 대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문항에 응답하는 일반적인 경향은 피검자의 수검 태도를 반영한다 (Jackson & Messick, 1958). 따라서, 성격유형 형용사 척도에 포함된 잠재적인 편향을 평가하기 위해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 상관을 구했다(표 4). 순용적 성격과 복종적 성격은 사회적 바람직성과 정적 상관을 가지며, 부정적 성격, 문제지표, 회피적 성격은 부적 상관을 가진다. 이는 각 성격유형이 가지는 특성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대체로, 성격유형 형용사 척도는 승인 욕구로 인한 편향으로 부터 비교적 자유로움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상관계수도 ±.42를 초과하지 않으며, 이는 척도 점수에서 변량의 최고 16%만이 이러한 반응 편향에 귀인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4. 준거관련 타당도

(1) 성격요인검사(16PF)와 상관분석

성격요인검사와 상관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비사교적 성격은 16PF의 일차요인에서 소심성(.48), 신중성(.39), 냉정성(.30)과 높은 상관을 보였고, 이차요인에서 내향성(.46), 강한 불안(.32)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회피적 성격은 죄책감(.53), 소심성(.44), 불안감(.42), 신중성(.33), 약한 자아강도(.32) 순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이차요인에서는 강한 불안(.56)과 내향성(.30)에서 높은 상관을 보였다. 복종적 성격은 민감성(.18), 강한 통제력(.17), 유약성(.19)과 중간 정도의 상관을 보였을 뿐이다. 사교적 성격은 정열성(.63)과 대담성(.51)에서 높은 상관을 보였고, 이차요인에서는 외향성(.45)과 높은 상관이 있었다. 자기애적 성격은 지배성(.41), 대담성(.33), 정열성(.30)과 상관이 높았다. 공격적 성격은 대담성(.34), 지배성(.34), 정열성(.32)과 상관이 높았다. 순용적 성격은 강한 도덕성(.57), 강한 통제력(.54), 동기외곽척도(.32)와도 높은

표 5. 16PF와의 상관(N=411)

척도	비사교	회피	복종	사교	자기애	공격	순응	부정	문제
온정성	-.30**	-.17**	.13*	.26**				-.22**	-.19**
자아강도	-.18**	-.32**		.17**	.19**	.19**	.14*	-.27**	-.25**
지배성		-.14*		.29**	.41**	.34**	.21**		
정열성	-.39**	-.33**		.63**	.30**	.32**		-.12*	-.14*
도덕성	.13*				.17**		.57**	-.15*	
대담성	-.48**	-.44**		.51**	.33**	.34**		-.21**	-.22**
민감성	.14*	.24**	.18**					.15*	.19**
불신감				.18**	.24**	.18**			
사변성		.16**	.13*	.19**	.18**	.16**		.17**	.24**
실리성	-.19**	-.17**	.13*	.14*			.28**	-.19**	-.20**
죄책감	.25**	.53**			-.18**	-.24**	-.17**	.43**	.45**
진보성					.14*	.12*			
자기충족	.21**				.21**	.16**		.12*	.21**
통제력		-.14*	.17**			.13*	.54**	-.29**	-.20**
불안감	.20**	.42**						.41**	.48**
동기왜곡	.14*	-.33**		.16**	.16**	.22**	.32**	-.29**	-.26**
외향성	.46**	-.30**	.14*	.45**		.15*		-.23**	-.28**
불안성	.32**	.56**		-.22**	-.20**	-.26**	-.20**	.46	.48**
강정성	.16**	-.28**	-.19**					-.18**	-.24**
자립성	.12*	-.20**		.13**	.15**	.17**			
초자아	.16**			-.17**			.59**	-.19**	
창의성	.19**	.15*			.17**			.18**	.25**

* P<.05 ** P<.01

상관을 보임으로써 사회적 바람직성과 높은 상관이 있었던 결과와 일치한다. 순응적 성격을 또한 이차요인에서 강한 초자아 강도(.59)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부정적 성격은 죄책감(.43), 불안감(.41)과 높은 상관을 보였고, 이차요인 중 강한 불안(.46)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문제지표 척도는 불안감(.48), 죄책감(.45)과 높은 상관을 보였고, 이차요인에서도 강한 불안(.48)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또한, 어떤 척도도 16PF의 지능(B) 요인과 의미있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성격유형 형용사 척도가 지능과 관련된 현상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며, 정신병리 및 성격특성을 측정하는 자기

-보고식 검사의 척도들은 지능이나 연령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독립적이어야 한다는(Campbell, 1960) 견해를 충족시킨다.

(2) 다면적 인성검사(MMPI)와의 상관분석

MMPI는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성격검사이며(Lubin, Larsen, & Matarazzo, 1984) 표준 임상척도외에 다양한 척도들, 특히 성격장애척도(박병관 등, 1991; 박병관, 1993)가 개발되어 있어 기본 성격유형의 병리적 확장인 성격장애와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MMPI와 본 척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먼저, 비사교적 성격은 MMPI의 표준척도에서 Si(

표 6. MMPI와의 상관(N=159)

척도	비사고	회피	복종	사고	자기애	공격	순응	부정	문제
L				-.25**			.19*	-.38**	-.36**
F	.30**	.27**					-.28**	.37**	.32**
K	-.21*	-.27**						-.35**	-.33**
Hs	.20*	.21*					-.19*	.26**	.32**
D	.24*	.28**		-.35**	-.26**	-.38**	-.26**		.19*
Pd							-.22*	.32**	.35**
Pa		.34**						.34**	.49**
Pt	.35**	.50**						.44**	.48**
Sc	.32**	.35**					-.23*	.43**	.50**
Ma				.24*	.19*	.24*		.20*	.24*
Si	.41**	.41**		-.52**	-.39**	-.43**	-.22*		
DEP	.37**	.47**					-.21*	.43**	.50**
BIZ	.34**	.37**						.34**	.36**
FAM							-.22*	.34**	.30**
FRS		.29**				-.19*			
HYP				.36**	.31**	.31**		.35**	.38**
ANG						.23*	-.22*	.44**	.42**
ASP								.30**	.26**
ANX	.26**	.46**						.35**	.42**
CYN	.35**	.19*						.26**	.24**
HEA	.22*	.25**						.26**	.33**
LSE	.30**	.52**		-.22*	-.25**	-.26**	-.30**	.40**	.35**
OBS	.25**	.44**						.42**	.47**
SOD	.40**	.30**		-.64**	-.42**	-.46**			
WRK	.31**	.50**					-.25**	.45**	.47**
TRT	.35**	.46**					-.20*	.41**	.43**
SZD	.43**	.25**		-.59**	-.35**	-.36**			
AVD	.44**	.53**		-.47**	-.33**	-.35**	-.20*	.29**	.24*
DPD	.32**	.56**		-.21*	-.21*	-.23*	-.24*	.40**	.34**
HST	-.40**	-.35**		.64**	.41**	.46**			
NAR	-.27**	-.40**		.44**	.42**	.44**	.35**	-.22*	
ANT				.20*	.20*	.30**		.29**	.29**
CPS	.31**	.46**						.40**	.46**
PAG	.29**	.45**						.41**	.42**
STY	.40**	.43**		-.25**				.32**	.40**
BDL		.23**						.44**	.46**
PAR	.29**	.45**					-.23*	.41**	.42**

* P<.05 ** P<.01

※ MMPI 내용척도 : DEP(우울), BIZ(사고의 기이성), FAM(가족내 갈등), FRS(공포감), HYP(경조증적 경

향), ANG(적대감), ASP(반사회성), ANX(불안), CYN(냉소성), HEA(건강염려), LSE(낮은 자존감), OBS(강박성), SOD(사회적 불편감), WRK(직무곤란), TRT(부정적 치료예후)
 ※ MMPI 성격장애척도: SZD(정신분열성), AVD(회피성), DPD(의존적), HST(연기성), NAR(자기애적), ANT(반사회적), CPS(강박적), PAG(수동-공격성), STY(정신분열형), BDL(경계선적), PAR(편집증적 성격장애).

41), 내용척도(임영란, 1992)에서는 SOD(.40), DEP(.37), CYN(.35), TRT(.35)와 높은 상관을 보였고 성격장애척도에서는 AVD(.44), SZDI(.43), STY(.40), HST(-.40)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회피적 성격은 표준척도의 Pt(.50), Si(.41), Sc(.35), 내용척도의 LSE(.52), WRK(.50), DEP(.47), ANX(.46), TRT(.46), OBS(.44)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성격장애 척도에서는 DPD(.56), AVD(.53), NAR(-.40), HST(-.35)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복종적 성격은 어떤 MMPI 하위척도와도 높은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사교적 성격은 표준척도에서 Si(-.52), D(-.35)와 높은 부적 상관, 내용척도에서 SOD(-.64)와 높은 부적 상관, HYP(.36)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성격장애척도에서는 HST(.64), NAR(.44)과 높은 상관을 보였고 SZD(-.59), AVD(-.47)와는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애적 성격은 표준척도에서 Si(-.39)와 높은 부적 상관, 내용척도에서 SOD(-.42), HYP(.31)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성격장애 척도에서는 NAR(.42), HST(.41)와 높은 정적 상관, SZD(-.35), AVD(-.33)와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공격적 성격은 표준척도에서 Si(-.43), D(-.38)와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고, 내용척도에서는 SOD(-.46)와 높은 부적 상관, HYP와 높은 정적 상관(.31)을 보였다. 그리고, 성격장애척도에서 HST(.46), NAR(.44)과 높은 정적 상관, SZD(-.36), AVD(-.35)와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순응적 성격은 표준척도에서 F(-.28)와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고, 내용척도에서는 LSE(-.30)와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성격장애척도에서는 NAR(.35)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부정적 성격은 표준척도에서 Pt(.44), Sc(.43), F(.37), Pa(.34) 등의 병리적인 척도와 높은 정적 상관, L(-.38), K(-.35)와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내용척도에서는 WRK(.45), ANG(.44), DEP(.43), OBS(.42), TRT(.41), LSE(.40) 등과 높은 상관을 보였고, 성격장애 척도에서는 BDL(.44), PAG(.41), PAR(.41), DPD(.40)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문제지표 척도는 표준척도에서 세가지 정신병 척도, 즉 Sc(.50), Pa(.49), Pt(.48)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L(-.36), K(-.33)와는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내용척도에서는 DEP(.50), OBS(.47), WRK(.47), TRT(.43), ANG(.42), ANX(.42) 등과 높은 상관을 보였고, 성격장애척도에서는 BDL(.46), CPS(.46), PAR(.42), PAG(.42), STY(.40)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Millon의 성격모형에 기초하여 8가지 기본 성격유형 척도와 더 병리적인 성격유형들을 하나로 묶은 문제지표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내적 합치도를 보였으며 비교적 안정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더 병리적 성격유형들이 개별적인 척도로 개발되지 못한 것은, Strack(1987)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대상이 정상 대학생이므로 병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에 응답률이 낮아 이들이 문항분석 과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본 척도의 내적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서적, 신경증, 주장성-공격성, 순응성 요인이 남녀에게 공통적으로 산출되었고, 내-외향성 요인은 여자 집단에서만 산출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PACL의 요인분석에서 정서적 신경증, 주장성-공격성, 사회적인 내-외향성의 세 요인이 산출되었다(Strack, 198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내-외향성 요인만이 양극(bipolar) 차원인데 반해, PACL의 경우 모든 요인들이 양극차원으로 되어있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내-외향성 차원이 여자집단에서만 발견되었는데, 여기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피검자 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것일 수 있으며, 문화의 영향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형용사 척도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본 척도가 여자의 내-외향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포함하고 있지만, 남자의 내-외향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은 포함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여러 가능성을 고려한 후 적절한 수정과 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격장애를 평가하는 MCMI, MBHI에는 정서적 신경증, 주장성-공격성 요인에 상응하는 요인들이 존재한다(Choca, Peterson, & Shanley, 1986; Flynn & McMahon, 1984; Millon, 1982; Millon, Green, & Meagher, 1982). 이것은 정상과 이상 장면에서 최소한 두 가지 성격차원이 공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성격의 전체 스펙트럼, 정상과 이상 성격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척도 수준이 아니라 문항 수준에서 요인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더 명확한 구조를 파악하도록 하며, 문항 중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항 중첩은 척도들간 상관의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 이것은 또한 인위적인 요인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Choca et al., 1986; Retzlaff & Gibertini, 1987; Strack, 1990). 문항 수준에서의 분석은 척도 채점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기본적인 잠재

변인을 확인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성격의 5-요인 이론과의 관계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16PF와 MMPI와 상관분석을 통해 성격유형 형용사 척도의 준거 관련 타당도를 살펴보았는데, 복종적 성격유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형용사 척도들은 대체로 좋은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보여주었다. 복종적 성격은 구성개념상 16PF의 복종성, 소심성, 순진성, 집단 의존성, MMPI의 공포감, 불안, 낮은 자존감, 직무관란, 의존적 성격장애 등과 높은 상관이 있어야 하지만, 이상의 관련 척도와 유의미한 높은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복종적인 성격 척도의 수정, 보완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성격 형용사 척도와 MMPI의 성격장애척도와와의 상관을 살펴보는 것은, 정상과 이상성격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1과 같이 Millon의 성격모형에 명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관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관계의 경향성은 보여주는 것 같다. 복종, 순응적 성격을 제외하고, 비사회적 성격-정신분열성 성격장애, 회피적 성격-회피성 성격장애, 사교적 성격-연기성 성격장애, 자기애적 성격-자기애적 성격장애, 공격적 성격-반사회적 성격장애, 부정적 성격-수동-공격적 성격장애, 문제지표-정신분열형·경계선·편집성 성격장애의 관계가 어느정도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것 같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성격유형 형용사 척도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질 것이다. 본 척도는 빠르고 쉽게 실시될 수 있으며, 자기 보고식 검사로 개발되었지만 관찰자가 다른 사람을 기술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Anastasi, 1988). 즉, 언어 소통에 장애가 있거나 지필검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된 경우, 혹은 자기-평가와 타인의 평가를 비교하려고 하는 경우, 동료나 가족, 또는 의료진이 평정을 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의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문항에 응답하도록 지시문을 수정함으로써 평가의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Horton & Retz-

laff, 1991).

그러나, 형용사 척도는 피검자의 성격에 관한 이미지를 측정할 뿐이며, 검사 결과로 피검자의 무의식이나 심층적인 부분까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Alreck & Settle, 1985). 따라서 본 척도는 피검자의 성격에 관한 탐색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반응 목록 경향, 과일반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응답하는 경향과 같은 수검태도는 심리검사의 반응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Jackson & Messick, 1958).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의 경향만을 고려했으나 나머지 수검태도의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Gough(1983)의 ACL처럼 반응 스타일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 즉 응답한 문항의 수, 응답한 문항 중 바람직한 형용사의 수와 바람직하지 않은 형용사의 수, 공통분산 점수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또한, 예-아니오 형식의 응답 방식은 쉽게 응답할 수 있어 피검자의 노력을 덜어주고 통계적인 분석을 용이하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를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우치게 한다. 모든 예-아니오 형식의 성격검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검사의 결과가 구체적인 문항 내용보다 반응 스타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인데(Wheeler, Little, & Lehner, 1951; Jackson & Messick, 1958), 이를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성격유형 형용사 척도의 최대 장점인 단순성과 경제성을 크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응답방식을 5점이나 7점 척도로 변화시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금명자(1984). 내담자의 승인 욕구와 상담자의 자기공개가 내담자의 자기공개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영환, 김재환, 김중술, 노명래, 신동균, 염태

호, 오상우(1989). 다면적 인성검사 실시요강. 서울:한국가이던스.

박병관, 김진영, 노주선, 안창일, 신동균, 박영숙(1991). MMPI 성격장애척도와 16PF 검사 구조분석: 성격장애척도 타당화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0, 55-75.

박병관(1993). 수정된 MMPI 성격장애 척도 표준화 예비연구. 미발표.

염태호, 김정규(1990). 성격요인검사 실시요강과 해석방법, 웅진출판사, 서울.

이기문 감수(1989). 동아 새국어 사전. 동아출판사, 서울.

이영준(1991). SPSS/PC를 이용한 다변량분석. 도서출판 석정, 서울.

이주일(1988). 이분척도와 Likert형 7점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반응양식의 비교: 자기 검색 척도와 자기 의식 척도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임영란(1992). 신판 MMPI 한국형 내용척도의 타당화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최윤경, 임영란, 박병관, 안창일, 최정윤, 김재환(1993). MMPI 내용척도와 성격장애 척도의 구조분석.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2(1), 1-15.

Allport, G.W.(1937). Personality: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Y: Holt.

Allport, G.W., & Odbert, H.S.(1936). Trait names: A psycho-lexical study. *Psychological Monographs*, 47.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3rd ed.). Washington, DC: Author.

Anastasi, A.(1988). Psychological testing(6th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Burish, M.(1984). Approaches to personality inventory construction. *American*

- Psychologist*, 39, 214-227.
- Campbell, D.T.(1960). Recommendations for APA test standards regarding construct, trait, of discriminant validity. *American Psychologist*, 15, 546-553.
- Cattell, R.B.(1946). Description and measurement of personality. Yonkers on -Hudson, NY : World Book.
- Cattell, R.B.(1946). The description and measurement of personality. Yonkerson, NY : World Book.
- Cattell, R.B.(1957). Personality and motivation structure and measurement. Yonkers on-Hudson, NY : World Book.
- Cattell, R.B.(1957). Personality and motivation structure and measurement, World Book, Yonkerson-Hudson, N.Y.
- Cattell, R.B., Eber, H.W., & Tatsuoka, M.M.(1970). Handbook for the Sixteen Personality Factor Questionnaire, Champaign, IL : Institute for Personality and Ability Testing.
- Choca, J.P., Peterson, C.A., & Shanley, L.A.(1986). Factor analysis of the Millon Clinical Multiaxial Inventory.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54, 253-255.
- Costa, P.T., Jr., & McCrae, R.R.(1985).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manual, Odessa, FL :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Costa, P.T., Jr., & McCrae, R.R.(1989). The NEO-PI/NEO-FFI manual supplement, Odessa, FL :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Crowne, D.P., & Marlowe, D.(1960). A new scale of social desirability independent of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4, 349-354.
- Digman, J.M., & Takemoto-Chock, N.K.(1981). Factors in the natural language of personality : re-analysis, comparison and interpretation of six major studie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16, 149-170.
- Fenigstein, A., Scheier, M.F., & Buss, A.H.(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43, 552-527.
- Flynn, P.M., & McMahon, R.C.(1984). An examination of the factor structure of the Millon Clinical Multiaxial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308-311.
- Goldberg, L.R.(1981). Standard makers of the big five factor structure. Paper presented at an Invited Workshop on Personality Language, Groningen, The Netherlands.
- Gorsuch, R.L.(1983). Factor analysis(2nd ed.).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Gough, H.G.(1957). 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Manual. Palo Alto, CA : Consultin Psychologists Press.
- Gough, H.G.(1960). The adjective check list as a personality assessment research technique. *Psychological Report*. 6, 107-122.
- Gough, H.G., & Heilbrun, A.B.(1983). The adjective check list manual. Palo Alto, CA :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Heilbrun, A.B.(1959). Validation of a need scaling technique for the adjective check

- list.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3(4), 347-351.
- Horton, A.D., & Retzlaff, P.D. (1991). Family assessment: toward DSM-III R relevanc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7(1), 94-100.
- Jackson, D.N., & Messick, S. (1958). Content and style in personality assessment. *Psychological Bulletin*, 55(4), 243-251.
- Loevinger, J. (1957). Objective tests as instruments of psychological theory. *Psychological Reports*, 3, 635-694.
- Loevinger, J. (1972). Some limitations of objective personality tests. In J.N. Butcher (Ed.), *Objective personality assessment* (pp. 45-57). New York: Academic.
- Lubin, B., Larwen, R.M., & Matarazzo, J. (1984). Patterns of psychological test usage in the United States 1935-1982. *American Psychology*, 39, 451-454.
- Macrae, R.R., & Costa, P.T. Jr. (1983). Joint factors in self-reports and ratings: neuroticism, extraversion, and openness to experi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 245-255.
- Millon, T. (1982). *Millon clinical multiaxial inventory manual* (3rd ed.). Minneapolis, MN: National Computer Systems.
- Millon, T. (1969). *Modern Psychopathology*. Philadelphia: Saunders.
- Millon, T. (1981). *Disorders of personality*. New York: Wiley.
- Millon, T. (1984). On the renaissance of personality assessment and personality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5), 450-466.
- Millon, T., Green, C.J., & Meagher, R. B. (1982). *Millon behavioral health inventory manual*. Minneapolis, MN: National Computer Systems.
- Millon, T., & Everly, G.S. Jr. (1985). *Personality and its disorders: a biosocial learning approach*. New York: John Wiley & Sons.
- Morey, L.C., Waugh, M.H., & Blashfield, R.K. (1985). MMPI scales for DSM-III-personality disorders: their derivation and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3), 47-50.
- Murray, H.A. (1938). *Exploration in personality*. New York: Oxford Univ. Press.
- Norman, W.T. (1963). Toward an adequate taxonomy of personality attributes: replicated factor structure in peer nomination personality ratings. *Journal of Abnormal & Social Psychology*, 66(6), 574-583.
- Norman, W.T. (1967). 2,800 Personality trait descriptors: Normative operating characteristic for a university population.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ichigan.
- Retzlaff, P.D., & Gibertini, M. (1987). Factor structure of the MCMI basic personality scales and common item artifac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1, 588-594.
- Scheier, M.F., & Carver, C.S. (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 219-247.
- Skinner, H.A. (1981). Toward the integra-

- tion of classification theory and method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0, 68-87.
- Strack, S.(198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adjective check list to assess the Millon personality types in a normal pop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1(4), 572-587.
- Strack, S.(1990). Item facotr structure of the personality adjective check list. *Journal of Persoanlity Assessment*, 55(1 & 2), 86-94.
- Teeler, P.A.(1985). Review of Adjective Check List. Ninth Mental Measurements Yearbook, Vol. 1, 50-52.
- Tupes, E.C., & Christal, R.E.(1961). Recurrent personality factors based on trait ratings(USAF ASD Tech. Rep. No. 61-97). Lackland Air Force Base, TX: U.S. Air Force.
- Weiss, D.J.(1970). Further Considerations in Applications of Factor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8, 85-92.
- Widiger, T.A., & Frances, A.(1985). The DSM-III personality disorders perspectives from psychology. *Arch Gen Psychiatry*, 42, 615-623.
- Wiggins, J., & Pincus, A.L.(1989). Conceptions of personality disorders and dimensions of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essment*, 1(4), 305-316.
- Wiggins, J.S.(1982). Circumplex models of interpersonal behavior in clinical psychology. In P.C. Kendall & J.N. Butcher(Eds.),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clinical psychology*(pp. 183-221). NY: Wiley.
- Zarske, J.A.(1985). Review of Adjective Check List. Ninth Mental Measurements Yearbook, Vol. 1, 52-53.
- Zuckerman, M., & Lubin, B.(1965). *Manual for the multiple affect adjective check list*. San Diego, CA: Educational and Industrial Testing Service.

【부록】 성격 형용사 척도

척도	형용사
비사회적 성격 Asocial (23문항)	고독한, 과묵한, 내성적, 냉담한, 냉정한, 달관한, 둔한, 말수적은, 메마른, 목석같은, 무감각한, 무관심한, 무미건조한, 무심한, 무표정한, 북북한, 생기없는, 위축된, 융통성 없는, 조용한, 주눅든, 활기없는, 흐릿한
회피적 성격 Avoidant (20문항)	거부당한, 거북스러운, 겁많은, 고독한, 고분고분한, 과민한, 기가죽은, 꿈한, 답답한, 두려운, 머뭇거리는, 배타적, 부끄럼타는, 불안정한, 소심한, 수줍어하는, 의존적, 주저하는, 침울한, 회피적
복종적 성격 Submissive (25문항)	겸허한, 고분고분한, 공손한, 기꺼이 응하는, 너그러운, 다감한, 다소곳한, 둥글둥글한, 복종적인, 사근사근한, 소박한, 속기쉬운, 순응적, 순종하는, 악의없는, 약한, 연약한, 예의바른, 온순한, 의존적, 의지박약한, 천진난만한, 친절한, 헌신적, 협조적
사회적 성격 Gregarious (27문항)	감각적, 개방적, 거리낌없는, 기꺼이 응하는, 끼잇는, 나서길 잘 하는, 낙천적, 낭만적, 낙살좋은, 다감한, 들뜬, 떠들썩한, 명랑한, 발랄한, 변덕스러운, 불임성있는, 사회적, 사근사근한, 사치스러운, 생기있는, 수다스러운, 시시덕거리는, 외향적, 장난스러운, 천진난만한, 출랑대는, 활발한
자기애적 성격 Narcissistic (24문항)	거만한, 건방진, 결단성있는, 과시적, 나서길 잘 하는, 당당한, 도전적, 독창적, 무시하는 빠기는, 뻔뻔스러운, 야심만만한, 외향적, 우쭐대는, 으스대는, 의기양양한, 자기만족적, 자기중심적, 자만한, 자부심강한, 자존심강한, 자화자찬하는, 잘난척하는, 통솔력있는
공격적 성격 Aggressive (26문항)	강한, 거친, 겁없는, 결단성있는, 공격적, 과격한, 낙살좋은, 능글맞은, 당당한, 도전적, 두려움없는, 드센, 반항적, 배짱좋은, 불같은, 불끈하는, 사내다운, 씩씩한, 야심만만한, 외향적, 용감한, 으스대는, 음흉한, 의기양양한, 패기만만한, 호전적
순응적 성격 Conforming (28문항)	객관적, 계획성있는, 끈은, 공손한, 규칙적인, 근면한, 깨끗한, 꼼꼼한, 꾸준한, 모범적, 믿음직스러운, 부지런한, 빈틈없는, 신중한, 엄격한, 예의바른, 완벽주의적, 용의주도한, 의연한, 인내력 강한, 점잖은, 정중한, 지조있는, 진지한, 질서정연한, 착실한, 책임감있는, 치밀한
부정적 성격 Negativistic (21문항)	견잡을 수 없는, 게으른, 골난, 꿈한, 낙장부리는, 뚱한, 변덕스러운, 부정적, 불안정한, 불편한, 불평불만많은, 비관적, 빼딱한, 성질내는, 신경질적, 잔소리 심한, 짜증내는, 참을성없는, 태만한, 투덜대는, 통명스러운
문제 지표 PI(15문항)	가학적, 격정적, 과민한, 괴로운, 괴상한, 그늘진, 극단적, 기복이 심한, 변덕스러운, 분열된, 불안정한, 신경질적인, 안절부절못하는, 의심많은, 침울한

The Study of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djective Scales to Assess the Personality Types

Yun-Kyeong Choi and Chang-Yil Ahn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adjective scales to assess the Millon personality types in a normal population.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followed a method outlined by Loevinger. Nine scales containing 178 words were developed, one for each of Millon's eight basic personalities plus a Problem Indicator scale measuring aspects of his three more severe types. Extensive reliability and validity analyses were conducted, including a factor analysis of scales. These revealed high internal consistency for each scale, high test-retest reliability over a 2-week period, and good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based on self-report data. In factor analysis, these scales yielded dimensions which were interpreted as Affective Neuroticism, Assertiveness-Aggressiveness, Conformity, and Social Introversion-Extraversion. Research efforts focusing on Millon's theory as it applies to normals may bring a more 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entire spectrum of personality.